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김도희**
하상근***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남구 아음동에 소재하는 신화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즉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된 지역 만들기 정책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만들기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에 대해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행정위주의 사업에 지역주민의 단순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넘어선,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분석함에 그 의미가 크다.

분석결과, 담당 공무원의 경우는 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의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주민의 경우는 성공적이라고 단언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비해,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거의 평균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 평가주체별로 평가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자인 울산시 남구청의 입장과,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신화마을 주민들의 현실적인 인식 차이가 아닌가 싶다.

주제어: 민관협력거버넌스, 마을만들기, 신화마을

1. 서론

1980년대 초부터 불붙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민주주의 정체체제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정부는 ‘민’에 좀 더 귀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류경기, 2011:61)과 함께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1995년에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하에 추진해오던 정책 추진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 이 연구는 2013년 울산광역시 남구청 연구지원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2013년 11월 29일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과 정책 추진을 행해 나감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관료들의 일방적, 수직적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정부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이던 민간부문이던 공급자와 소비자사이의 교감이 중요해진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이해에 관련된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고객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거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이 공공부문과 시행자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지역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도시계획·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울산공단의 형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단 이주촌’이었던 울산시 남구 신화마을이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로 재탄생되면서, 성공적인 민관협력거버넌스 사례에 대해 그 성공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구신화마을 조성사업이 민관협력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되면서 과연 그 사업이 협력거버넌스로서 성공적이었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 신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과 울산 남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성공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주민과 정책집행자로서의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신화마을 벽화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2013년 6월 현재 울산시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에 거주하는 총 160여 가구와, 이 사업의 모든 정책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다. 이 중 신화마을에 대해서는 127가구가 설문조사에 응하여 최종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으며,¹⁾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은 159명이 최종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1)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33가구 중 13가구는 문전박대, 10가구는 외국인(중국, 몽골)으로 설문조사가 불가능하였고, 7가구는 실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집만 사 놓은 것)되었으며, 3가구는 요양원 생활을 함으로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할 수 없었다.

II. 민관협력거버넌스와 지역재생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의의

과거 중앙집권행정체제에서는 국가 중심, 공급자 중심의 정책결정,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21세기 진입 후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환경변화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새로운 국정 운영 기제로서 정부, 시장, 비영리기구(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방식(은재호·오수길, 2009:34)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공공관리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governance)개념(오수길, 2006:22)인데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먼저 국외학자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피터스와 피에르(Peters & Pierre, 1998)는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 직접 통제가 아닌 영향력 행사, 공사협동, 대안적 정책방식 활용 등을 요소로 하는 통치방식으로 정의하고 있고, 로오즈(Rhodes, 1997:15)는 교호성, 자원교환,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발적인 조직간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있다(박재창외, 2009:20). Lynn(2001)은 거버넌스는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도출되는 결정이나, 대표민주주의를 통해 선호를 결집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층제를 통해 내려진 결정보다 많은 사람들의 숙고와 토론을 통해 선호를 결집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층제를 통해 내려진 결정보다 많은 사람들의 숙고와 토론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 훨씬 우월하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자율적인 개인·조직 간의 자발적인 협동에 의한 사회적 조정을 강조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주도형 파트너십과는 달리 관료제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뉴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기존의 거버넌스와 구분하는 연구들도(Harmon & Mayer, 1986; Stoker, 1998; 김성준·김찬동, 2004) 제시되고 있다(김도희, 2006:71).

다음으로 국내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수·김일태(2001), 이종원(2002), 이명석(2002), 최병대(2002), 염일열·설성현(2003) 등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거버넌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거버넌스의 개념을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관점 중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념으로는 시민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도시정비,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의 목적을 만들고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일정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2. 민관협력거버넌스와 지역재생사업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실업, 범죄, 빈곤, 주택, 환경보호, 인종갈등, 폭력, 장

에인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약물남용 등 복잡한 사회문제들은 단일한 행위자나 기관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행위자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제개발,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민관협력거버넌스 방식을 많이 접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오수길, 2006:25). 박희봉과 김명환(2000)은 서초구와 포천군 주민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지역 사회거버넌스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김명숙(2005)도 Box(1998)가 제시한 네 가지 차원(규모, 민주성, 합리성, 책임성)으로 측정한 로컬거버넌스가 시민참여(지역문제해결, 공직자 접촉, 항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박재창외, 2009:21).

사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재생사업의 경우 그 지역에 정착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만큼 그 지역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배제한 사업 추진이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강조되어왔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참여절차가 주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하에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다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사업 추진과정도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업 추진 당초부터 주민들과 협력하에 논의를 하다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넓혀나가면서 다양한 결정 주체들 간의 동의를 성취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럴 경우 나중에는 사업이 더 쉽게 추진되고 계획이나 개발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협력하는 계획이나 개발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이영아·변필성·류승한·최병남, 2008).

Woltjer(2002), Stough(2001), Stough(2001) 등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살고싶은 도시와 시민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동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 확보 차원에서의 도구로서가 아닌 주민참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해외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도시부문의 개혁을 넘어 사회전반에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와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진영환·류승한·조판기·김진범·권영상·정윤희, 2007:2-3).

3. 선행연구의 검토

지역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재생사업의 성과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업추진의 성공요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국외사례로 일본 세따가야구(世田谷區) 다이시도(太子堂) 마찌즈꾸리의 사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세따가야구의 마찌즈꾸리는 도시미(都市美) 개발사업과 수복형 시가지 정비사업 등의 행정

추진 사업에, 주민이 계획단계부터 참가하는 사례를 개발해 왔다(박재길·이왕건·김명수·박경현·김지형·이성형, 2006). 본 사업 추진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과 사업추진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민관의 신뢰 구축이 성공적이었던 점, 주민 욕구에 맞는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음의 국외사례로 영국의 그레이트 야마우스(Great Yarmouth)의 파트너십체제 구축을 통한 도시만들기 사례(박재길외, 2006)를 들 수 있다. 인구 47,000명의 해안도시 그레이트야마우스는 소규모 공공 공간(public spaces)의 유지 및 관리개선을 통해 리버블 커뮤니티(liveable community) 만들기를 추진한 사례이다. 이 사례 역시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으로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들의 욕구를 사업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내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내사례로서는 경남 통영시 동피랑 마을만들기 사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마을 만들기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벽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사례라는 점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국내사례로 제시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통영의 동피랑 마을은 벽화마을로 만들어진 후에, 마을 내에 핸드페인팅으로 벽화를 남기는 활동, 마을의 이야기를 듣는 활동, 사진전시회, 재생용기를 이용한 솟대 작업, 그리고 엽서만들기 등의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의 경우, 마을샅터 가꾸기, 지역공동체 형성, 그리고 마을인재육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사업 전반에 관한 과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정보공개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위 국내외 사례 모두 네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재생사업의 성과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거환경 및 마을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향상되었으며, 재생 사업 추진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집중된 관심과 함께 재산가치의 상승효과 또한 누릴 수 있었다. 또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민과 관의 신뢰구축도 이루어졌지만 지역들 간의 마을 공동체 의식의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실제 성공적으로 추진된 국내외 사례인 국외사례로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區) 다이시도(太子堂) 마찌즈꾸리의 사례와 영국의 그레이트 야마우스(Great Yarmouth)의 파트너십체 구축을 통한 도시만들기 사례, 그리고 국내 사례인 경남 통영시 동피랑 마을 만들기 사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마을 만들기 사례를 등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성공요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업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민과 관이 일치하느냐(사업의 소망성),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로 철저하게 사업추진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느냐(사업정보의 공개성과 실효성 확보), 사업 추진 단계별 민관협력이 제대로 구축되어 추진되었느냐, 이를 통해 민과 관의 신뢰성이 구축되었으며, 주민들의 반응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였느냐 하는 점 등을 들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설문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분석 변수 도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에서 제시된 사례 이외에도 보다 많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설문 분석의 변수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다.²⁾

이상에서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초점을 맞춘 사례외에 최근 문화적 요인과 예술적 요인을 가미한 도시재생 사업이 각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계획입안단계에서의 민관협력의 여부를 강조하고 있는 연구로는 정미애(2002)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구니타치시를 대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분석과 최승호(2008)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파락과 이를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 모색, 양광식(2006)의 연구에서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집행단계에서는 민관협력 여부의 중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서 이상엽·정건섭(2011), 김두환·이윤상·이삼수(2007), 이주헌·최찬환(2012), 이주헌·최찬환(2012)의 연구등이 있으며, 나카지마 에리(2009)의 연구에서도 영국의 지속 가능한 지역만들기를 통해 집행단계에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계획입안단계와 집행단계에서의 민관협력거버넌스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계획입안과 집행 못지않게 중요한 단계가 정책평가인 것이다. 주민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평가단계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구의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무원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 주민들 중에도 본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민들과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이후 본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는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신화마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원들의 일대 일 면접을 통해 설문 분석으로 시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을 위한 지표설정은 앞서 제시한 지역재생사업의 국내외 성공사례 네 개의 사례분석(국외사례로 일본 세타가야구(世田谷區) 다이시도(太子堂) 마찌즈꾸리의 사례와 영국의 그레이트 야마우스(Great Yarmouth)의 파트너십체제 구축을 통한 도시 만들기 사례, 그리고 국내 사례인 경남 통영시 동피랑 마을 만들기 사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과 그 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지표 설정을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연구 분석에 관한 내용은 조사 설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2) 이 연구에서의 조사설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성공요인과 함께, 정책집행과 관련한 성공적인 정책집행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설계하였다.

4.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배경 및 추진효과: ‘지붕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 사례

1) 추진배경

(1) 정책추진자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소개하는 신화마을은 1960년대 울산공단의 형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단 이주촌’이었다. 마을은 현재 여천오거리 언덕에 위치하여 숲한 세월 속에서 번영과 쇠락을 거듭하여 오늘의 예술마을 ‘신화’가 되었다. 벽화마을로 조성되기 이전 신화마을은 낡은 지붕과 벽채의 모습으로 공단도시 서민의 생활이 그대로 느껴지는 구조여서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공간, 아이들에게는 지난시절을 알게 해주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했다.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정책추진자는 신화마을을 예술촌으로 만들고자 했던 울산지역의 화가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구청장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관광과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 2013. 2. 13).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는 신화마을은 작가들의 노력으로 재탄생 된 곳이다. 이 마을은 영화 ‘고래를 찾는 자전거’ 촬영지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0마을미술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되어 울산 남구와 지역작가의 협력으로 미술마을로 변모하였다. 낮은 판자 집과 좁은 골목으로 다니기 불편했던 공간은 이야기가 있는 그림으로 가득 채워 마을의 신화(新和-새롭게 화합하여 잘 살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마을을 지키는 대형 조형물은 신화마을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다. 신화마을은 마을 사람들과 신화마을 예술인들이 함께하여 자칫 사라질 뻔 했던 공간의 대반전을 보여준 지역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라 하겠다.

(2) 정책추진 계기

신화마을은 영남화학 제3비료공장 부지 조성 시 매암동에서 철거한 이주민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형성된 마을로 인근에는 화학공업지역으로 SK에너지, 송원산업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마을 대부분의 건물이 1960년대 시멘트 블록으로 건축된 단층 건물로 지역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노후화된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 새로운 개발이 시급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거주 주민들이 고령으로 직업이 없고, 일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인근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화마을은 철거주민들이 새로 형성한 마을로, 이주한 주민들이 화목하게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지은 지명이다(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주택과 내부자료, 2011. 4).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 신화마을은 마을 공동화(슬럼화)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화마을이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로 새롭게 조성될 수 있었던 계기는 2009년 고래를 찾는 자전거 영화를 찍기 위해 장소를 모색 하던 도중 1980년대에서 발전이 멈춘 듯한 신화마을을 발견하고, 신화마을의 한 집을 영화 속 인물인 화가의 집으로 선정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영화 촬영 당시 신화마을 일부 벽에 벽화를 그리는 장면을 넣기 위해 울산 출신 화가의 도움을 받아 벽화작업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울산광역시 남구 고래관광과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 2013. 2. 13). 2010년에서 2012년에 걸쳐 지역출신 화가들을 중심으로 한 벽화작업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작업에 참여했던 울산 지역의 화가들이 신화마을을 예술촌으로 조성한다면 소외된 지역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사업이라 하겠다.

2) 추진 효과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효과에 대해서는 2013년 7월에 실시했던 주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와 개별 심층면접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로 하겠다. 먼저 주민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이후 마을의 주거환경 및 마을 이미지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에는 신화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주민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화마을 사업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민들, 즉 사업 추진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잦은 접촉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행정기관과의 접촉도 없고 설명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참여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신화마을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실제 단계별 사업추진과정에 전혀 참여가 없었던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반영되다보니 주민만족도가 실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만큼 높게 나타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실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사업추진 이전에 비해 주거지가 깨끗해지고 이미지가 개선되었음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불평의 목소리를 내놓는 이유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 의문점을 가지고 심층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신화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긴 했지만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지붕개량, 생활상의 불편사항들의 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주민만족도 평가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화마을 사업 추진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민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감정적인 평가가 다소 개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가치 상승에 대한 정책적 추진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화마을의 경우 사업 추진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큼 지역이 널리 알려지고 관광명소가 되었다. 사업 추진 이전에는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외에는 찾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지역가치가 상승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신화마을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인구가 대다수 이다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행정기관과의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 참여욕구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가치의 상승을 사업추진이후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다보니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외부인들의 평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외부인들의 평가에

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아 오던 지역이 관광명소로 거듭날 정도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국내외 사례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구 역시 신화마을 조성 사업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남구도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해온 지역 못지않게 신화마을의 지역 가치를 높이고 좀 더 지역 이미지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 신화마을을 예술인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3년 8월 현재 신화마을에 거주하면서 전문 예술 활동을 행해 나갈 예술인을 공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마을 벽에 그려진 그림의 보수를 위한 활동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화마을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조례제정 역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기대와 도시 재생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최근 도시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도시들은 도시공간의 재생과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재생전략을 시도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세익(2012)의 연구만 보더라도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함으로써 관광지로써 거듭나기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게이즈헤드와 중국 베이징의 따산쯔 798지구, 콜롬비아의 메테인이 이에 해당되는 도시들이다.

중국 베이징의 따산쯔 798지구의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화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산쯔 798지구는 버려진 공장지대였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나라에 공급된 많은 군수품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던 지역이다. 군수품을 만들던 곳에서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재생된 대표적인 지역인 것이다. 버려진 공장지대에 미술가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갤러리가 열리고 이어서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섰다.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독창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였다. 단 한 명으로 시작한 지역의 예술활동은 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한국 등의 국제적인 갤러리와 카페, 레스토랑, 사진 스튜디오, 의상점 등의 입성으로 종합적이고 국제적인 예술촌의 모습의 갖추게 된 것이다(한세익, 2013).

이처럼 문화적 요인과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을 시도한 신화마을 역시 사회·문화적 기대에 대한 욕구 충족과 도시 재생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단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서 예술창작촌으로 육성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가 도시재생의 성장 동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오랜 세월 신화마을에 거주해 온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과 관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

화마을 조성 사업의 정책적 추진 효과에 대한 논의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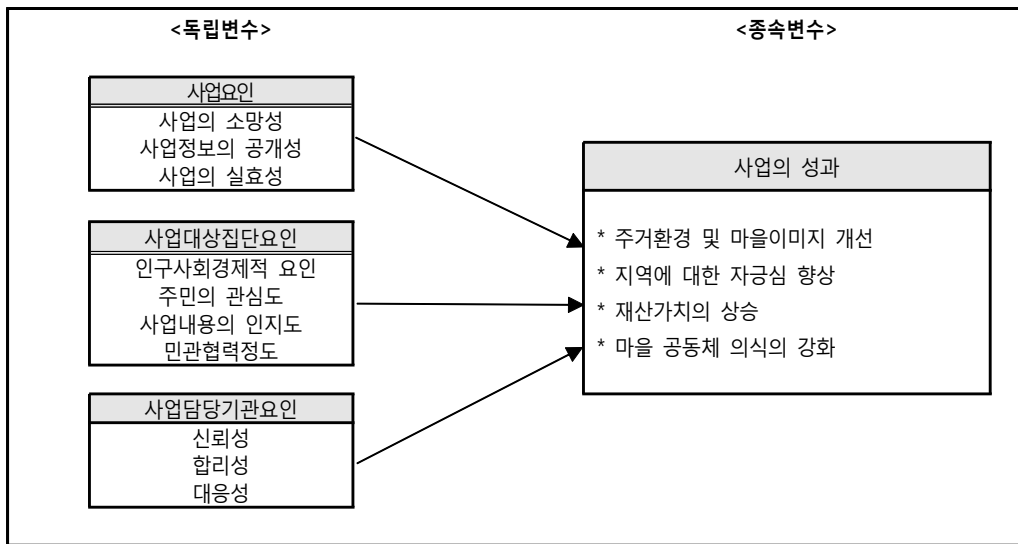
Ⅲ.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1. 연구의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의 조사설계는 기본적으로 지역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를 통한 성공요인과, 정책집행과 관련한 성공적인 정책집행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설계하였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는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결과로써 기대되는 사업의 추진효과 및 성과이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그리고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요인, 사업대상집단요인, 그리고 사업담당기관요인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2. 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

이 연구의 종속변수로써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효과 및 성과라 함은, 신화마을 벽화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혹은 목표의 달성 정도로 규정하고자 한다.

〈표 1〉 변수목록 및 측정지표

구분	요인	변수	측정문항	측정방법	
독립변수	사업요인	사업의 소망성	①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② 목표의 충분성 ③ 수단의 다양성 ④ 사업내용의 명확성	Likert 5점척도	
		사업정보의 공개성	① 사업의 사실 비왜곡성 ② 정보공개 수준		
		사업의 실효성	① 관련법률 및 조례의 필요성 ② 전담행정부서의 필요성(인적자원) ③ 지속적인 예산지원(물적자원) ④ 주민조직 협의체의 필요성		
	사업대상집단요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주민>		명목척도
			① 성별 ② 연령 ③ 소득수준 ④ 주택소유형태 ⑤ 직업 ⑥ 교육수준 ⑦ 거주기간	<공무원>	
		주민의 관심도	① 심리적 거부감 ② 심리적 무관심 ③ 마을의 비애착성 ④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Likert 5점척도
		사업내용의 인지도	① 사업의 인지 부족 ②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민관협력정도	① 참여 및 협력의 정도 ② 의사결정의 동등한 권한 ③ 파트너십 형성		
	사업담당기관요인	신뢰성	① 사업의 지속성 ②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③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Likert 5점척도
		합리성	① 지역주민의 지지 ② 지역주민의 요구 ③ 수단적 효율성		
대응성		① 적실성 ② 주민의견 반영 ③ 지역현안 정보제공			
종속변수	사업의 성과	① 주거환경 및 마을이미지 개선 ② 지역에 대한 자긍심 향상 ③ 재산가치의 상승 ④ 마을 공동체 의식의 강화		Likert 5점척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측정지표로는 ① 주거환경 및 마을이미지 개선, ② 지역에 대한 자긍심 향상, ③ 재산가치의 상승, ④ 마을 공동체 의식의 강화이다.

반면에 독립변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공요인을 선정함으로써, 세 가지 범주, 즉 사업요인(사업의 소망성, 사업정보의 공개성, 사업의 실효성), 사업대상집단요인(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주민의 관심도, 사업내용의 인지도, 민관협력정

도), 그리고 사업담당기관요인(신뢰성, 합리성, 대응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요인은 일반적인 사업의 성공요인을 사업시행과 관련된 문제점 및 쟁점과 관련시켜 측정지표를 분류하였다. 우선 사업의 소망성은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것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사업정보의 공개성은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하면서 정책담당기관이 주민들에게 사업 자체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왜곡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와, 시행상 필요한 관련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사업정보의 공개성은 사업이 얼마나 사실을 정확하고 폭넓게 공개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비왜곡성과 정보공개 수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은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관련법률 및 조례의 필요성, 전담행정부서의 필요성(인적자원), 지속적인 예산지원(물적자원), 그리고 주민조직 협의체의 필요성을 그 측정지표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사업대상집단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주민의 관심도 요인과 사업의 인지도 요인, 그리고 민관협력정도 요인을 선정하였다. 우선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은 사업대상지역인 신화마을 지역주민과 사업의 주체인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신화마을 주민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주택소유형태, 직업, 교육수준, 그리고 거주기간의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울산시 남구청의 관련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근무년수, 학력, 그리고 직급을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사업대상자의 주민의 관심도 요인은 심리적 거부감과 심리적 무관심, 마을에 대한 해당 주민의 비애착성, 그리고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사업대상자의 사업내용 인지도 요인은 신화마을 사업과 관련된 인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나 그 의의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업에 대한 인지부족과,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그 지표로 선정했다. 그리고 민관협력정도요인에는 참여 및 협력의 정도, 의사결정의 동등한 권한, 그리고 파트너십 형성을 그 지표로 선정했다.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은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전개되는 사업인 만큼 민관협력은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에 민관협력거버넌스 차원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는데, 특히 과거의 일방적인 행정위주의 사업이 아닌, 해당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의사결정상의 동등한 권한은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담당기관 요인에서는 사업담당기관의 신뢰성과 합리성, 그리고 대응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사업담당기관의 신뢰성에는 사업의 지속성,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그리고 차치단체장의 관심도를 측정지표로 하였다. 사업담당기관의 합리성은 크게 지역주민의 지지(support), 지역주민의 요구(demand), 그리고 수단적 효율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업담당기관의 대응성은 적실성, 주민의견 반영, 그리고 지역현안 정보제공 등을 측정지표로 하였다. 적실성은 당해 행정기관이 주민의 요구에 대해 적실성 있는 대응(서비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주민의견 반영은 당해 행정기관이 각종 계획의 작성이나 시책 만들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현안 정보제공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해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한 지역현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IV. 조사결과의 분석 및 해석

1. 표본의 특성

1) 주민의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추출된 주민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 페이지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남자가 47명(37.0%)이고 여자가 80명(63.0%)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60대가 44명(34.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70대 이상이 38명(29.9%), 50대가 31명(24.4%)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가 100가구(78.7%)로서 거의 절대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3-5년이 13가구(10.2%)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교육수준)으로는 초등 졸 이하가 54명(42.9%)으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졸 및 고졸이 다 같이 각각 31명(24.6%)으로 나타났다. 직종(직업)은 전체 응답자 중 전업주부가 65명(5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26명(20.8%), 회원이 17명(13.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별 월 평균 소득 수준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 77명(60.6%)으로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200만원 미만이 29명(22.8%), 200-300만원 미만이 15명(11.8%)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93명(73.2%)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월세 17명(13.4%)과 전세 12명(9.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민의 표본 특성

요 인	범 주	응답자 수(n)	응답자 비율(%)
성 별	남 자	47	37.0
	여 자	80	63.0
	계	127	100.0
연 령	20대	1	0.8
	30대	5	3.9
	40대	8	6.3
	50대	31	24.4
	60대	44	34.6
	70대 이상	38	29.9
	계	127	100.0
거주기간	1년 미만	4	3.1
	1년-2년	5	3.9
	3년-5년	13	10.2
	6년-10년	5	3.9
	10년 이상	100	78.7
	계	127	100.0
학력(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54	42.9
	중 졸	31	24.6

	고졸	31	24.6
	대졸	9	7.1
	대학원졸 이상	1	0.8
	계	126	100.0
직종(직업)	회사원	17	13.6
	자영업	9	7.2
	전업주부	65	52.0
	공무원	1	0.8
	농민/어민	4	3.2
	전문직	2	1.6
	학생	1	0.8
	기타	26	20.8
	계	125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7	60.6
	100-200만원	29	22.8
	200-300만원	15	11.8
	300-400만원	3	2.4
	400-500만	0	0.0
	500만원 이상	3	2.4
	계	127	100.0
거주형태	자가	93	73.2
	전세	12	9.4
	월세	17	13.4
	기타	5	3.9
	계	127	100.0

2) 공무원의 표본 특성

다음으로 공무원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의 <표 3>에 나타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남자가 84명(52.8%)이고 여자가 75명(47.2%)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남자가 조금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40대가 73명(45.9%)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30대 가 61명(29.9%), 50대 이상이 17명(24.4%)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이 60명(37.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47명(29.6%), 1년 이상-3년 미만이 13명(8.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교육수준)으로는 대졸이 140명(88.1%)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11명(6.9%), 대학원졸 이상이 7명(4.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급을 살펴보면, 7급이 62명(40.%)으로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8급이 55명(35.5%), 6급이 23명(14.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공무원의 표본 특성

요 인	범 주	응답자 수(n)	응답자 비율(%)
성 별	남 자	84	52.8
	여 자	75	47.2
	계	159	100.0
연 령	20대	8	5.0
	30대	61	38.4
	40대	73	45.9
	50대 이상	17	10.7
	계	159	100.0
재직기간	1년 미만	6	3.8
	1년 이상- 3년 미만	13	8.2
	3년 이상- 5년 미만	8	5.0
	5년 이상-10년 미만	47	29.6
	10년 이상-20년 미만	60	37.7
	20년 이상	25	15.7
	계	159	100.0
학력(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	.6
	중 졸	0	0.0
	고 졸	11	6.9
	대 졸	140	88.1
	대학원졸 이상	7	4.4
	계	159	100.0
직급	3급	1	.6
	4급	0	0.0
	5급	2	1.3
	6급	23	14.8
	7급	62	40.0
	8급	55	35.5
	9급	12	7.7
	계	155	100.0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응답결과

여기에서는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성과의 응답결과와 이러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성과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성과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및 성과를 다음의 <표 4>와 같이 네 가지 측정지표로 구분하였다.

〈표 4〉 사업성과(주민/공무원)³⁾⁴⁾

사업성과	주거환경 및 마을이미지 개선		지역에 대한 자긍심 향상		재산가치의 상승		마을 공동체 의식의 강화		전 체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2.42	1.77	2.73	1.99	3.09	2.32	3.07	2.24	2.82	1.77
표준편차	.99	.76	1.11	.85	1.13	.94	1.14	.90	.93	.76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평균 2.82로써 거의 평균에 가깝게 응답을 하였고, 공무원의 경우는 1.77로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담당기관과 사업대상집단 사이에 성과평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 중에서 주거환경 및 마을이미지 개선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측정지표는 보통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에 대해 두 집단(주민과 공무원)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Levene의 등분산검정을 통한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사업성과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의 공통요인의 구성에 따른 타당성 있는 척도구성을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주민과 공무원 모두 하나의 성분만 추출되었다.⁵⁾ 그리고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주민은 .872, 공무원은 .852로써 척도구성에 따른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사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빈도분석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성과영향요인을 사업요인(사업의 소망성, 사업정보의 공개성,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대상집단요인(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주민의 관심도, 사업의 인지도, 민관협력정도) 그리고 사업담당기관요인(신뢰성, 합리성, 대응성)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각 요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부터 <표 7>까지이다.

(1) 사업요인에 관한 빈도분석

사업요인과 관련된 성과영향요인의 의미는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갖추어야 할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업대상집단에게 실제로 필요하거나 요구되어지는 것 혹은 바람직한 것

3) 각 측정지표에 대한 통계량을 두 셀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왼쪽 셀은 주민의 통계량이고, 오른쪽 셀은 공무원의 통계량이다. 앞으로 모든 표에서는 주민/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두 셀을 동시에 제시될 것이다.

4) 각 측정지표에 대한 평균은 숫자가 작을수록 긍정적이고, 클수록 부정적이다.

5)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하였으며, 요인선정기준으로는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고유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선택하였다.

까지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업요인과 관련된 성과영향요인으로는 사업의 소망성, 사업정보의 공개성,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사업요인에 관한 응답결과(주민/공무원)

사업의 소망성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목표의 충분성		수단의 다양성		사업내용의 명확성		전 체		
	평 균	2.57	1.83	2.98	2.41	3.09	2.22	3.10	2.22	2.93	2.17
표준편차	1.07	.82	1.08	.96	1.16	.83	1.14	.87	.96	.74	
사업정보의 공개성	사업의 사실 비왜곡성				정보공개 수준				전 체		
	평 균	3.26		2.18	3.37		2.34	3.32	2.26		
	표준편차	1.08		.87	1.05		.96	1.01	.87		
사업의 실효성	관련법을 및 조례의 필요성		전담행정부서의 필요성		지속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		주민조직 협의체의 필요성		전 체		
	평 균	2.42	2.06	2.30	2.08	1.98	1.94	2.20	1.84	2.22	1.98
	표준편차	1.15	.91	1.09	1.00	.99	.94	1.08	.87	.91	.81

① 사업의 소망성

사업의 소망성이란, 바람직한 사업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질적 내용이 바람직스러워야 사업대상집단이 쉽게 순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업목표가 바람직스러워야 하고 사업수단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하게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소망성에 관한 항목으로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목표의 충분성, 수단의 다양성, 사업내용의 명확성 등이 4가지 항목으로 나타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 평균이 2.93으로 거의 보통에 가깝게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2.17로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신화마을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목표의 충분성(2.98)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수단의 다양성(3.09), 그리고 사업내용의 명확성(3.10)에 대해서 거의 보통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업의 소망성에 대한 전체 평균이 2.17로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1.83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측정지표, 즉 목표의 충분성, 수단의 다양성, 그리고 사업내용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소망성에 대한 두 집단(주민과 공무원)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② 사업정보의 공개성

사업정보의 공개성이란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자체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시행 상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사업정보의 공개성은 사업의 사실 비왜곡성과 정보공개 수준이라는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평균이 3.32로 조금은 부정적인 경향에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체평균 2.26으로 조금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사업정보의 공개성에 대한 집단 간(주민과 공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 사업의 실효성

특정 사업이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효율적·실제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인 조건(여건) 및 상황, 그리고 순응확보수단 등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위한 조건 및 여건이 존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즉 사업자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요인으로써의 사업의 실효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를 위한 본 조사의 항목으로는 관련법률 및 조례의 필요성, 전담행정부서의 필요성(인적자원), 지속적인 예산지원(물적자원), 그리고 주민조직 협의체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평균 2.22로써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공무원의 경우 전체평균 1.98로써 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는 다른 지표보다 지속적인 예산지원에 대해 더 많은 필요성을 느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지표에 비해 주민조직 협의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집단 간(주민과 공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사업대상집단요인에 관한 빈도분석

사업대상집단은 사업성공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주체이다. 이는 사업대상집단이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업대상집단과 관련된 사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인구사회적 배경요인, 주민의 관심도, 사업내용의 인지도, 민관협력정도 등이 있으나, 사회적 배경요인은 앞의 표본의 특성에서 살펴보았고 주민의 관심도, 사업내용의 인지도, 민관협력정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다음의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사업대상집단요인에 관한 응답결과(주민/공무원)6)

주민의 관심도	심리적 거부감		심리적 무관심		마을의 비애착성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전 체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2.84	3.21	2.94	3.34	2.78	3.31	2.71	3.25	2.82	3.27
표준편차	1.12	1.04	1.13	1.03	1.34	.96	1.26	1.03	.95	.82
사업의 인지도	사업의 인지 부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전 체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2.75	1.01	3.25	1.01	3.04	1.05	3.39	.94	2.89	3.32
표준편차	1.01	1.01	1.01	1.01	1.05	1.05	.94	.94	.91	.87
민관협력정도	참여 및 협력의 정도		의사결정의 동등한 권한		파트너십 형성		전 체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3.06	1.01	2.53	.96	3.06	1.05	2.52	.92	2.92	2.33
표준편차	3.06	1.01	2.53	.96	3.06	1.05	2.52	.92	2.92	2.33
표준편차	1.01	.96	1.05	.92	1.10	.93	3.01	.95	2.46	.82

① 주민의 관심도

주민의 관심도는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무리 의도가 좋고 우리마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거부감이 생기거나, 관심이 없거나, 마을에 대한 애착이 없는 관계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신화마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철거되어야 할 마을이라는)를 가지고 있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심리적 거부감, 심리적 무관심, 마을의 비애착성, 그리고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라는 네 가지 측정지표를 사용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평균 2.82로써 조금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체평균이 3.27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의 관심도에 대한 집단 간(주민과 공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② 사업내용의 인지도

사업내용의 인지도는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의의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사업과정상의 문제점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평균 2.89로써 보통에 가깝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공무원의 경우 전체평균 3.32로써 조금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다른 측정지표 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이나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3.04로써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사업내용의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6) 여기에서는 평균의 해석상 주의를 해야 한다. 즉 사업대상집단요인 중 주민의 관심도와 사업의 인지도의 각 측정지표에서는 평균의 숫자가 작을수록 부정적이고, 클수록 긍정적이다.

③ 민관협력정도

민관협력정도는 본 마을만들기 사업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로 본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거버넌스가 ‘참여’에 초점화되어 있다면, 오늘날의 거버넌스는 ‘협력’에 초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관협력정도를 참여 및 협력의 정도, 의사결정의 동등한 권한, 그리고 파트너십 형성 등을 그 측정지표로 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평균이 3.01로써 보통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전체평균 2.46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민관협력정도에 대한 집단 간(주민과 공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사업담당기관요인에 관한 빈도분석

일반적으로 사업담당기관이 사업결정기관과 사업집행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를 의미한다.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담당기관의 성공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합리성, 그리고 대응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사업담당기관요인에 관한 응답결과(주민/공무원)

신뢰성	사업의 지속성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전 체	
평 균	2.50	2.06	2.84	2.08	2.83	1.79	2.74	1.98
표준편차	1.09	.84	1.01	.84	1.04	.83	.92	.74
합리성	지역주민의 지지		지역주민의 요구		수단적 효율성		전 체	
평 균	3.07	2.10	3.14	2.27	3.02	2.13	3.07	2.17
표준편차	1.07	.85	1.04	.92	1.07	.92	.95	.83
대응성	적실성		주민의견 반영		지역현안 정보제공		전 체	
평 균	2.94	2.12	3.00	2.06	3.01	2.05	2.98	2.08
표준편차	.99	.80	1.00	.81	.99	.78	.93	.73

① 신뢰성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이 성실하고 일관성있게 집행하고, 평소에 믿을 만하고 태도가 공정하면 사업대상집단은 사업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뢰성은 사업의 지속성,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등 3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 평균 2.74로써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1.98로써 아주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주민의 경우 다른 지표들에 비해 사업의 지속성에서 평균 2.50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

무원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평균 1.79로써 다른 지표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집단 간(주민과 공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② 합리성

여기서의 합리성은 H. A. Simon이 주장하는 합리성 중 절차적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그 측정지표로 지역주민의 지지, 지역주민의 요구, 그리고 수단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평균 3.07로써 거의 보통으로 응답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전체평균이 2.17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무원의 경우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절차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성에 대한 집단 간(주민과 공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 대응성

대응성은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당해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적실성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가, 즉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계획이나 지역현안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변수로써, 여기에서는 적실성, 주민의견 반영, 그리고 지역현안 정보 제공 등이 측정지표로 사용되었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의 경우 전체평균 2.98로 거의 보통에 가깝고, 공무원의 경우 전체평균이 2.08로써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응성에 대한 집단 간(주민과 공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나와 두 집단 간에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성과 영향요인분석

여기에서는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⁷⁾

7) 변수의 척도구성을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초기의 측정구조와 동일함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사업요인(사업의 소망성, 사업정보의 공개성, 사업의 실효성), 사업대상집단요인(인구사회경제적 요인, 주민의 관심도, 사업의 인지도, 민관협력정도), 사업담당기관요인(신뢰성, 합리성, 대응성) 등의 척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척도구성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는데, Cronbach's alpha값은 다음과 같다(단, 주민/공무원).

1)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결과(주민)

여기에서는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에 통한 적도구성을 통해 사업성과 영향요인과 관련된 38개 독립변수⁸⁾를 가지고 선형회귀모형의 통계량을 도출할 수 있는데, 다음의 <표 8>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변수만 제시하였다(유의수준 0.001 및 0.05).

<표 8>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주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1	.205	-	.592	.555
사업의 소망성	.650	.061	.685	10.660	.000***
민관협력정도	.154	.063	.156	2.434	.017*
직업(전문직)	.862	.385	.123	2.238	.027*
사업의 실효성	.129	.059	.126	2.186	.031*

R²= .682, * p<.05, *** p<.001

위의 <표 8>을 살펴보면,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R²값이 0.682로써,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에 대한 변량의 약 68%가 설명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투입된 것은 사업의 소망성, 민관협력정도, 직업(전문직),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등 4개 변수이다. 한편 이들 4개의 변수들의 비표준화 계수(B)값은 각각 0.65, 0.15, 0.86, 그리고 0.13 등으로 나타나, 사업의 소망성이 높을수록, 민관협력정도가 높을수록, 회사원에 비해 전문직일수록,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이 높을수록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의 소망성의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화마을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며,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할수록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민관협력정도의 경우,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과 행정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사업의 소망성		사업정보의 공개성		사업의 실효성	
.883	.877	.890	.883	.868	.895
주민의 관심도		사업의 인지도		민관협력정도	
.783	.820	.691	.733	.878	.845
신뢰성		합리성		대응성	
.863	.855	.878	.917	.926	.907

8)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사업요인의 3개 변수, 사업대상집단요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의 dummy변수 29개와 그 외 3개 변수, 그리고 사업담당기관요인의 3개 변수 등 총 38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진행되며,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주민,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협의회)가 참여할 경우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해당 주민의 직업이 회사원에 비해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효성의 경우, 신화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신화마을 만들기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신화마을 만들기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신화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협의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⁹⁾

2)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결과(공무원)

여기에서는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에 통한 척도구성을 통해 사업성과 영향요인과 관련된 28개 독립변수¹⁰⁾를 가지고 선형회귀모형의 통계량을 도출할 수 있는데, 다음의 <표 9>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변수만 제시하였다(유의수준 0.1%, 1% 및 5%).

<표 9>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공무원)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41	.144	-	5.166	.000
사업의 소망성	.378	.093	.392	4.055	.000***
사업정보의 공개성	.253	.084	.294	3.001	.003**
직급(6급)	-.558	.174	-.277	-3.200	.002**
근무년수(20년 이상)	.375	.175	.182	2.144	.034*

R²= .505, * p<.05, ** p<.01, *** p<.001

위의 <표 9>를 살펴보면,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R²값이 0.505로써,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에 대한 변량의 약 51%가 설명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투입된 것은 사업의 소망성, 사업정보의 공개성, 직급(6급), 그리고 근무년수(20년 이상) 등 4개 변수이다.

한편 이들 4개의 변수들의 비표준화된 계수(B)값은 각각 0.38, 0.25, -0.56, 그리고 0.38 등으로 나타나, 사업의 소망성이 높을수록, 사업정보의 공개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무년수가 1년 미만에

9) 위 분석결과와 상관행렬에서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해 공차한계 및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10)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사업요인의 3개 변수, 사업대상집단요인의 인구조경제적 요인의 dummy변수 19개와 그 외 3개 변수, 그리고 사업담당기관요인의 3개 변수 등 총 28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비해 20년 이상일수록 사업성과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직급이 3급에 비해 6급이 적을수록, 사업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의 소망성의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화마을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며,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할수록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업정보의 공개성의 경우,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자체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거나,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시행 상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수록,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¹¹⁾

직급의 경우 3급에 비해 6급이 적을수록 사업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울산시 남구청의 고위공무원들은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진(주무관)들은 다소 고위공무원에 비해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무년수가 1년 미만에 비해 20년 이상일수록 사업성과가 높게 평가한 것은, 근무년수가 많은(20년 이상) 공무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1년 미만 재직할 공무원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V. 결론: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로써, 울산광역시 남구의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의 사례에 대한 정책과정별 민관협력거버넌스의 현황을 살펴보아, 이 사례가 과연 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 성공적인 사례인가를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나를 평가하고, 만약 성공적이었다면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과정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현황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민관협력거버넌스’이다. 즉 과거의 단순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사업시행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특정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협력함으

11) 공무원의 경우에도 분석결과의 상관행렬에서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해 공차한계 및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로써 사업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려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차원인 것이다. 따라서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 과정(계획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집행이후단계)별로 실제로 협력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실로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¹²⁾

다음의 <표 10>을 살펴보면, 협력적 거버넌스 중 주민의 경우 참여는 전체평균이 3.19, 동등한 의사결정은 3.22로써 조금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참여는 전체평균 2.19, 동등한 의사결정은 2.22로써 주민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별 민관협력거버넌스에 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민관협력거버넌스에 대한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단언하기 힘들 것이다.

<표 10> 정책과정별 민관협력거버넌스에 관한 응답결과(주민/공무원)

협력적 거버넌스	계획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집행이후단계		전 체											
	참여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										
평 균	3.16	2.20	3.23	2.22	3.28	2.17	3.27	2.22	3.17	2.18	3.22	2.23	3.17	2.20	3.17	2.22	3.19	2.19	3.22	2.22
표준편차	1.07	.76	1.08	.86	1.07	.82	1.07	.86	1.02	.82	1.03	.83	1.05	.82	1.09	.85	.97	.719	.98	.79

2.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공요인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거환경 및 마을이미지 개선, 지역에 대한 자긍심 향상, 재산가치의 상승, 마을 공동체 의식의 강화에 대해, 주민들은 거의 평균에 가까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¹³⁾ 공무원의 경우는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 주체별로 성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¹⁴⁾ 이는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자인 울산시 남구청의 입장과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신화마을 주민들의 현실적인 인식 차이가 아닌가 싶다. 즉 사업 주체자는 어떻게 하든 사업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할 것이고, 정책대상집단은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들은 본 사례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한 셈이고, 신화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평균(보통)에 가까운 평가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성과평가를 하였다면, 이 사업의 성공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에 대한

12)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① 정보제공 및 참여확보, ② 의사결정에 있어 행정과 주민의 동등한 권한 및 협력을 그 측정지표로 하였다.

13) 위의 <표 6>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및 마을이미지 개선」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 향상」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재산가치의 상승」과 「마을 공동체 의식의 강화」는 거의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셈이다.

14) 이러한 사업성과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은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요인을 위의 <표 8>와 <표 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의 경우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의 소망성, 민관협력정도, 직업(전문직),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등 4개 변수이고, 울산시 남구 공무원의 경우는 사업의 소망성, 사업정보의 공개성, 직급(6급), 그리고 근무년수(20년 이상) 등 4개 변수이다. 여기에서도 신화마을만들기 사업 결과에 대해 사업평가의 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도 앞서 성과평가에 의해 나타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다. 즉 주민의 경우는 정책대상집단이고, 울산시 남구 공무원의 경우는 사업의 집행자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상자로서 이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태도로 나타난 것이고, 남구청 공무원들은 이 사업에 의한 기대치를 중심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에 대한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들의 높은 기대치로써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성공요인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성공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¹⁵⁾

따라서 우리가 민간협력거버넌스라는 것을 논할 때, 단순히 특정 사업의 주체(정책관련집단)들이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및 입장 차이를 방치한 채 협력거버넌스를 논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적 거버넌스일 수 없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가치관 및 입장 차이를 줄이고, 공통적인 목표추구를 위한 서로의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될 것이다.

3.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

마지막으로 남구의 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도시재생전략에 있어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의 활용을 접목시켜 도시재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과연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특성, 인구학적 구조, 주민들의 욕구,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가 있었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업추진 계획입안단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과 민과 관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계획입안단계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사업의 범주와 대상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 도출 없이 예산규모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15)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물론 응답대상자 주체와 입장이 다름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각 주체별로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요인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진정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체별로 지향 차이를 줄여나가고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 협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정책집행단계와 집행단계 이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계획입안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을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과 마을 조성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정부와 주민간의 교류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남구는 사업추진과정에도 마을 조성사업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의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고, 사업추진이 완료된 이후에도 신화마을을 예술촌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열정과 의지는 있으나 주민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화마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이 사안이 있을때마다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전체 주민 중 적극적인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설명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주민이 사업 추진 이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취합하여 정리된 내용을 정부와 논의하는 형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민의 열정과 의지,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관련 전담부서, 관련 조례의 제정, 충분한 예산확보, 담당인력의 전문성, 민관협력 조직체 구축 등 아주 기본적인 사안인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제법 존재한다. 남구의 신화마을 조성사업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어느 일정한 단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 과정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2012).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2.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2010). 「한국의 녹색도시·마을 만들기」. 국토연구원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1.

- 김도희·정준급.(2006). 울산지역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성과와 한계-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배심원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5(3):68-89.
- 김도희.(2012). 울산광역시 남구의 도시문화정책 추진성과의 정책적 함의, 16(3):1-23.
- 김두환·이윤상·이삼수. (2007).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이해갈등조정, 「시민사회와 NGO」, 5(1):241-284.
- 김명숙. (2005). 로컬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325-347.
- 김준현. (2011). (2010) 「지역자활 거버넌스 실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찬동(2005). “로컬거버넌스의 구축방향과 전략-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김용성. (2012).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일본 세타가야구와 광주 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8). 「문화도시 전략에 있어 공공미술 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카지마 에리. (2009).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 파트너십과 지방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 두리공간환경연구소. (201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사업의 성과과 과제」. 국토연구원.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23.
- 류경기. (2011). 도시 내 상생 모델로서의 거버넌스-DDP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9(3):59-74.
- 목정훈. (2006).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정연 2006-R-05.
- 박재길·이왕건·김명수·박경현·김지형·이성형.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 2006-44.
- 박재길·김현식·김광익·이왕건·변필성·황승미. (200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 2005-13.
- 백선혜·라도삼. (2009).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정연 2008-PR-53.
- 신성자. (2002).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승. (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효진. (2011).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만들기: 통영 동피랑마을의 관광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영. (2008).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世田谷區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규. (2004). 「도시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4-08.
- 이은영. (2011).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통한 도시 어메니티 창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석. (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대원. (2012).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책적 지원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미. (2011). 「국내 벽화마을만들기의 성공요건 분석」.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재욱. (2006). 일본 오사카 대도시권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도시재생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4):337-360.
- 박재창. (2009).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오름.
- 신중진·신효진. (201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서울 독산3동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10):233-244.
- 양광식. (2006). 충청남도의 마을공동체 육성방안: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2): 359-379.
- 염일열·설성현. (2003). “로컬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광주광역시 북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오수길. (2006).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321-338.
- 이병수·김일태. (2001). “지방정부와 NGO간의 로컬거버넌스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의정부시 공무원과 NGO활동가들의 인식, 태도,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4권 2호.
- 이상엽·정건섭.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자립형 지역공동체)의 발전방향 연구-일본 제도와의 비교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5(2):221-252.
- 이영아·변필성·류승환·최병남. (2008).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방안」, 국토연구원.
- 이승중. (2008). 「시민참여정책사례 연구」, 학림사.
- 이종원. (2002). 정부형성과 거버넌스:이론적 연결고리의 탐색 및 지방 거버넌스에서의 적용, 「정부학연구」, 8(1):69-91.
- 이주현·최찬환. (2012). 국내의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4(1):29-36.
- 정미애. (2002). 일본의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시민참여: 구니타치시를 사례로, 「일본연구논총」, 20: 231-258.
- 진영환. (2008).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 국토연구원.
- 최병대. (2002).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김석준의 거버넌스의 이해」. 8장, 서울: 대영문화사.
- 최병대. (2003). “함께 다스림(Governance)의 재조명:Local Governance의 의미와 서울시 시정참여사업으로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최승호. (2008). 지역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자립 방안 연구-사회적 자본론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 41-58.
- 하상근. (2010).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관한 추세적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3호.
- 하상근. (2011). 「정책불응의 이해」. 대영문화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2011. 3). 「울산예술」.
- 한세억. (2013). 창조도시의 비교론적 고찰과 함의,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에 의한 도시재생」, 기문당, 2009.
- Petters, B. Guy, and John Pierre.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23-243.
- Rodes, R.A.W.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
- Stoker, G. (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0. no 1.
- Strogh, R. (2001).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B. Johansson, C. Karlsson and R Stough ed., *Theories of Endogenous Regional Growth*, Springer, pp. 17-48.
- Taylor, N. (1999). Anglo-American Town Planning Theory Since 1945: Three Significant Development But No Paradigm Shifts, *Planning Perspectives*, V.14: 327-345.
- Woltjer, J. (2002). The Public Support Machine: Notions of the Function of Participatory Planning by dutch Infrastructure Planners, *Planning, Parctice & Research*, V. 17. N.4:437-453.

김도희(金度希):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비선호시설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2001)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갈등관리, 지방행정, 복지행정, 여성행정 등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문화도시정책 추진성과의 정책적 함의-남구의 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2012), “공공정책갈등의 제3자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2013), “청년 1인 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2013) 등이 있다. (dhkim5090@ulsan.ac.kr).

하상근(河相勳):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05, 한국정책학회 학술상 수상)와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관한 추세적 비교연구”(한국정책학회보, 2010) 및 「정책불응의 이해」(대영문화사, 2011) 등이 있다. 전공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이고, 관심분야는 정책불응(관리)과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적 자본 등이다(skhaa@ulsan.ac.kr).

Abstract

Policy Effectiveness Analysis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Govern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Nam-gu, Ulsan Promoting Analysis of Factors

Kim, DoHee

Ha, Sangkeun

Recently, cities attempt to become establishment of local identities by creating new community called Maulmandeulg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project of Maulmandeulgi in shin-wha village of yaeumdong, Nam-gu, Ulsan with regard to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town.

In particular, this project of Maulmandeulgi is ver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rather cooperative governance than participatory governance, as a major successful cas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a result analysis,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review, the project was successful, whereas in the case of residents alleging it is hard to be evaluated successfully. And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for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is very positive but, compared to the case of local residents showed normal evaluation.

Thus, with the same project can check the difference depending on evaluator(between Nam-gu Office, ulsan of the promoter project and a local residents of policy target group).

Key Words: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Maulmandeulgi, Shin-wha village